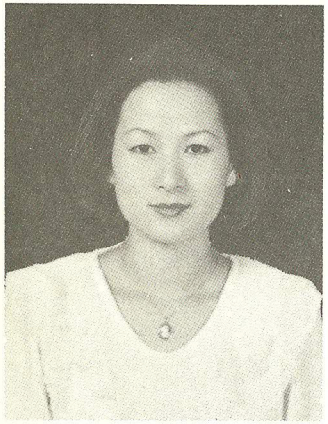
第 4 回 大韓民國舞踊祭 大賞受賞団 地方巡廻公演

넋 들 임(創舞会)

□ 공연기간 : 1982. 11. 17～11. 24
□ 공연지역 : 清州 · 大田 · 晋州 · 木浦 · 釜山 · 大邱
□ 주　　최 : 韓国文化芸術振興院 · 芸総支部
□ 후　　원 : 文化公報部 · 地方関係機関

■ 대표자의 말

지방 순회공연에 부쳐



임 학 선

요즈음 한국무용은 감각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전통 지향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전통만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그 전통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무용의 소재가 현실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요즈음 그 표현방법으로서의 춤사위가 재래의 춤사위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춤사위가 지닌 특성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 감각에 맞는 춤사위 개발 즉, 이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술은 무엇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즉, 의미와 표현과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용에 있어서도 「무엇을 전하느냐」하는 문제와 「어떻게 말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답습이나 전수형태의 무대예술이 아닌 이 시대를 말할 수 있는 무용,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통은 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무용의 현대화라는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모인 단체가 창무회입니다. 창무회가 창단된지 일곱해가 되는 해인 올해, 제4회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읍니다. 그러나 회원들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함께 하겠다고 모인 그룹이기에 서로가 힘이 되었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읍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쁨보다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더우기 항상 계획으로만 그쳤던 지방순회공연을 갖게 된 것은 대상이라는 영광과 함께 더 없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영광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안무자의 말

삶을 새로운 넋의 들임〔入〕으로

崔 恩 姬

우리 춤의 現代的 受容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先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여 한국적인 認識의 論理에서 출발한 「새로운 視覚」을 바탕으로 우리 춤사위의 전승의 의미와 발전적 의미를 함께 연구하여 自生的 意味에서의 한국무용의 발전적 기틀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임하는 안무자의 정신적 맥락은 個人的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한국의 토속신앙이나 巫俗儀禮에서 보여지는 人間의 삶에 대한 믿음 혹은 인간의 굴레에서 비롯된 숙명적 인연, 神에 대한 영적희구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우리 민속의 原初的인 리듬과 의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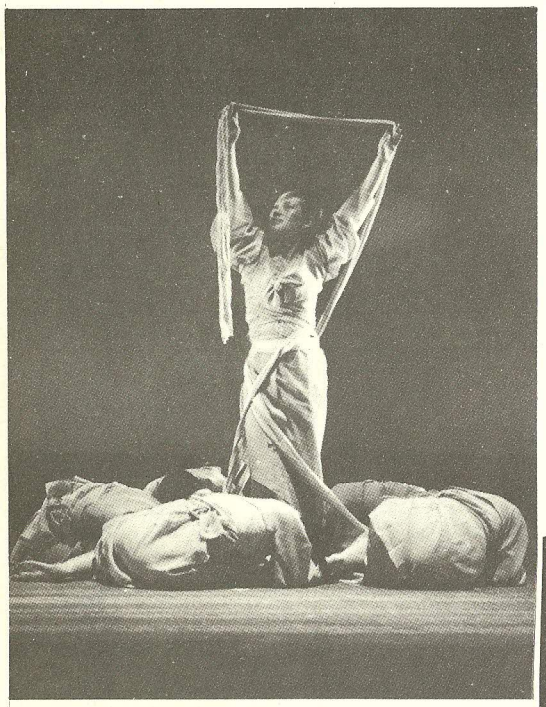
그러한 의미에서 본 작품 「넋들임」은 우리의 巫俗儀禮의 「진오귀굿」의 형식을 빌어서 한국인의 삶에 대한 체험적인 인식논리를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구조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生에 대한 源型的 이미지로 보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그 형식과 내면적 의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形象化해 보려는 것이었읍니다. 작품의 구성은 먼저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의식을 거행한 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의 삶과 이별의 구조를 통한 첨예화된 갈등의 과정이 전개되며 그 과정이 끝난 뒤 비로소 확실히 구획되는 生과 死의 입장, 다시금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새로운 넋의 들임(入)으로 끝맺고 있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무용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겠읍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1 부

1. 도 르 래



● 안　무 : 공동안무
● 음　악 : 김영동
● 출　연 : 임학선 · 민경숙 · 김영희
손정희 · 황인주 · 정혜진

어미는
잇발로 네
배꼽줄을 끊었다.

끊어도
끊고 또 끊어도

끊이지 않는 끈이 있어

나를 묶고
나와 너를 묶고

태초를 묶어
돈다.
끝없이 돌아간다.
봄바람이 영원히 불어간다.

2. 사　　물

● 안　무 : 김매자
● 음　악 : 김영동
● 출　연 : 임학선 · 김영희 · 손정희
강미리 · 강인숙 · 김선미
마복일 · 민경숙 · 오승희
정혜진

태초에 세상은
하늘과 땅이 꽉 붙어
떨어지지 않아
풀도 짐승도
한 마리 새도 살 수가 없읍니다.
하나의 소리
빛 가운데 우주를 드러내고
우리를 여기 존재케 합니다.
발굴러 땅 깨우고
손뼉쳐 하늘 울리자.
목소리 합쳐 우주를 흔들자.
이 땅은 단단히 밟을 일이다.
허공은 힘있게 가를 뿐이다.
탄탄히 서자
드높이 울리자
징, 북, 쇠, 장고
해, 달, 별, 인간

Intermission

3. 넋 들 임 (제 4 회 대한민국무용제 대상수상작품)

—— 새로와진 삶과 그대를 위해 ——

● 안 무 : 최은희
● 음 악 : 홍선례
● 미 술 : 김구림
● 출 연 : 임학선 · 최은희 · 김영희
황인주 · 강미리 · 강인숙
김선미 · 마복일 · 오승희
이애현 · 정혜진 · 이철진
김일준 · 송영호 · 조선묵

차마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떠나 보내기 위해 만나려는
안타까운 부름,
그 목소리 먼 먼 하늘에도
울렸구나 울렸구나.

어느 곳에고 눈떼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는
때묻듯 정이 들은 이웃이며
어느 모퉁이 모퉁이마다인들
내 눈길 닿지 않을 수 있을까
아끼고 쓰다듬던
자리, 내 자리들
아, 떠나고 싶지 않구나.

어둠속에 서 있는 우리
서로 더듬어 어루만지는 손길이
엉기고 엉켜 어우러졌네
저 가슴 밑바닥부터 꿈틀거리며 뒤척이는
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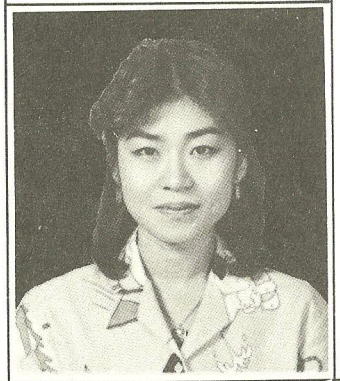
새벽이 오는가
어디 먼 곳에서부터
내내 어둠헤치며 걸어오신 손님
푸시시 깨어나는 세상
새로와진 사랑

출연자

최 은 희(안무자)
- 이대 교육대학원 졸업
- 경기대 강사
-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 출연
- 미국 순회공연
- 제1회 개인발표회 ('82. 8. 8)

- 이대 대학원 졸업
- 성신여고 강사
-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 출연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 일본쯔꾸바대학 지도자 강습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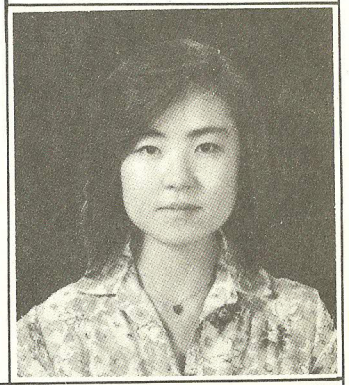
손 정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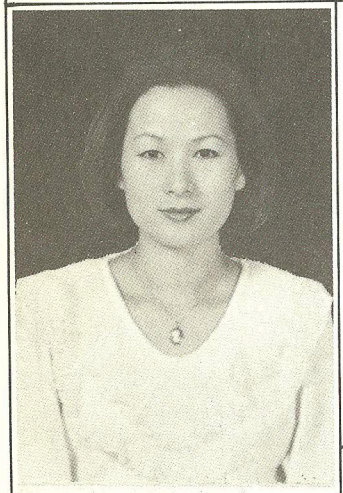


강 미 리
- 이대 대학원 재학
- 이대 무용과 조교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 이대 대학원 재학
- 이대 조교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김 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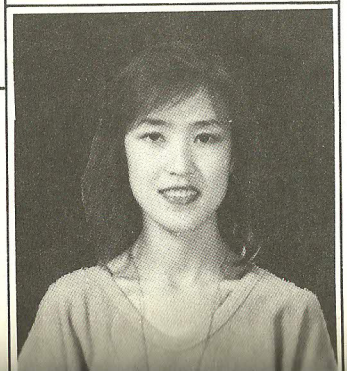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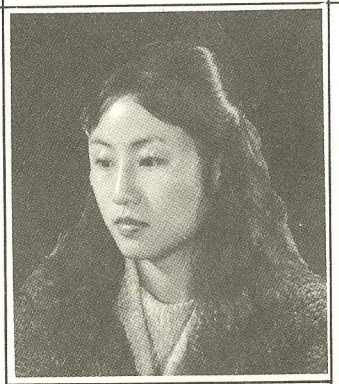


임 학 선(대표)
- 이대 대학원 졸업
- 이대·서강대 강사
-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 안무·출연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주최 동양학 학술회의 주제발표

- 이대 대학원 졸업
- 조선대 강사
-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 출연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 일본 쯔꾸바대학 지도자 강습회 참가

김 영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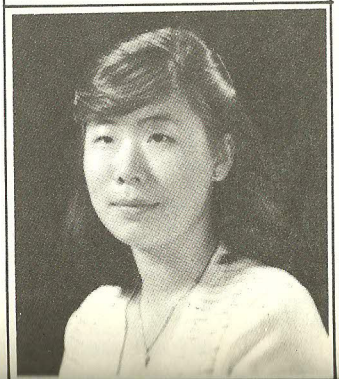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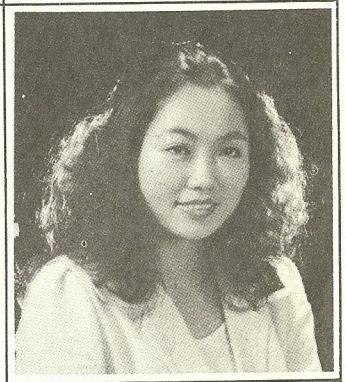


황 인 주
- 이대 대학원 재학
- 계원예고 강사
-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 출연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 이대 대학원 재학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강 인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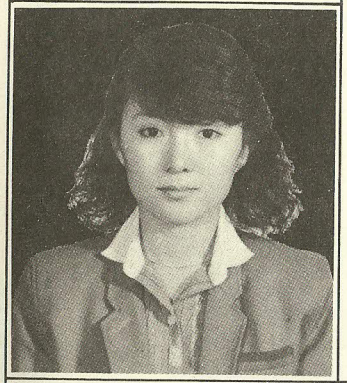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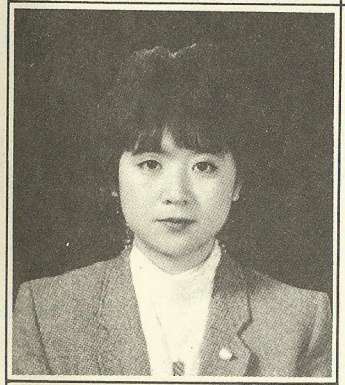


마 복 일
- 이대 대학원 재학
- 이대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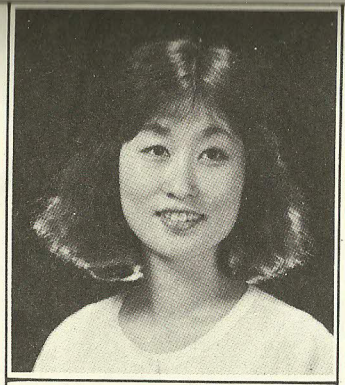
• 이대 무용과 졸업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민 경 숙





오 승 희
• 이대 대학원 재학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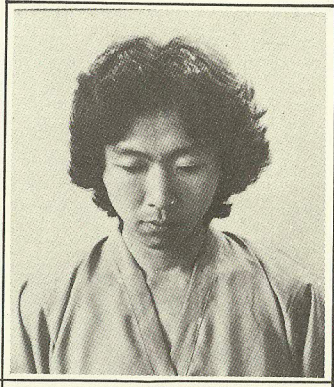
이 애 현
• 이대 대학원 재학
• 동덕여중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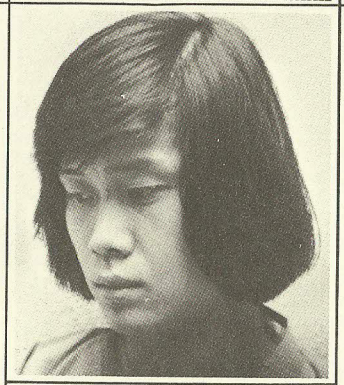
• 이대 무용과 졸업
• 경기국민학교 교사
• 미국 및 유럽 순회공연

정 혜 진

• 서울예대 연극과 2년
• 제3회 창무회 발표회 출연
• 제1회 최은희 무용발표회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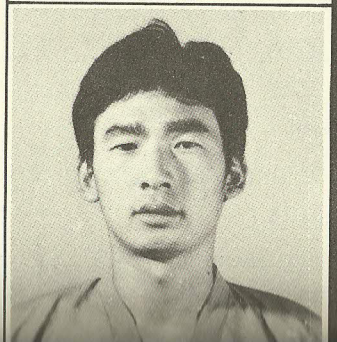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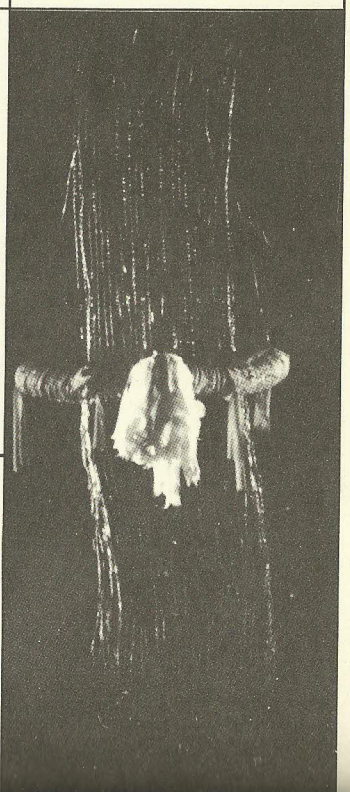
이 철 진





김 일 준
• 서울예대 연극과 1년
• 제3회 창무회 발표회 출연

송 영 호
• 서울예대 연극과 1년
• 제3회 창무회 발표회 출연
• 제1회 최은희 무용발표회 출연

• 서울예대 연극과 1년

조 선 묵